

파주 ‘헤이리’의 인문과 예술 그리고 도서관

이 증 권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의교수
450345@hanmail.net



헤이리에서의 필자 ■

헤이리의 첫 인상

“헤이리는 다양한 문화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마을을 지향합니다. 1994년부터 구상, 1997년 발족된 헤이리는 15만평에 작가, 미술인, 영화인, 건축가, 음악가 등 370여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문화예술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경기 파주지역에 전해져오는 전래농요인 ‘헤이리 소리’에서 따왔습니다.”

헤이리 홈페이지의 첫 소개 글이다. 자유로를 따라 임진각을 가다가 예술마을 ‘헤이리’라는 이정표를 보고 ‘동네 이름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었다. 그래서 이번 방학 중에 시간을 내어 헤이리를 방문하기로 하고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위와 같은 안내가 나왔다. 헤이리라는 이름이 전부터 있던 동네 이름이 아니라 파주지역의 전래농요에서 따온 것이라는 설명에서 ‘헤이리 사람들’의 문화적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때마침 한 잡지에서 헤이리를 취재, 소개한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잡지기사에 따르면 헤이리라는 이름의 모태가 되는 파주 농요는 “어허허허 허허이 허허야 헤헤이 헤, 헤이리....”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신동아 2007년 1월호, p.420). 허허 그렇구먼!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되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흥이 일어났다. “헤헤헤, 헤이 헤이 헤이리”라고 흥얼거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2007년 1월 14일 포근한 겨울날, 혼자 자동차를 몰고 자유로를 달렸다. 눈앞에 전개되는 시원스런 풍경이 좁은 방구석의 답답한 마음 먼지



■ 북하우스 내부
■ 북하우스 건물




를 날려주었다. 경쾌, 통쾌, 상쾌하다. 집이 일산에 있다 보니 20여 분만에 헤이리에 도달했다. 겨울이라 초록은 없었지만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우선 걸으며 풍겨오는 마을의 이미지가 여느 마을과는 달랐다. 건물 하나하나가 제각기 멋과 맛을 내면서 독특한 개성미를 뽐내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는 이렇게 생겼시유, 저는 이루쿠 생겼구만이라고.” 건축 예술에 문외한인 나는 그저 특이하고 아름답다는 생각만이 머리에 스칠 뿐이었다. 어느 시인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저 “아! 산산산, 아! 물물물” 했다던가? 나도 그 시인을 닮았는지 모른다. ‘아! 멋있다. 아! 예쁘다.’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헤이리와 책의 만남

도서관쟁이인 나의 관심은 어디를 가나 책과 도서관이다. 헤이리가 단순히 예술마을이라면 필자는 헤이리를 더 나중에 찾아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검색을 통해 헤이리에 책이 많다는 정보를 얻었기에 서둘러 달려온 것이다. 헤이리에 책을 전시하고 있는 곳은 ‘북하우스’, ‘매거진하우스’, ‘북카페 반디’, ‘동화나라’, ‘네버랜드빌딩 어린이리브로’, ‘모티프원’, ‘책이 있는 집’ 등이다. 이들은 도서관과는 운영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도서관과 유사한 문화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북하우스’는 한길사에서 운영한다고 한다. 1층은 레스토랑과 카페,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ramp)부터 책을 가득 가득 전시했는데, 다 올라



매거진하우스 내부 
 북카페 반디 문패 
 북카페 반디 건물 

가 보니 또 차를 마시는 낭만적 공간이 나온다. 책의 주 전시장이 올라가는 램프인 썸이다. 램프를 따라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은 책을 마음대로 뽑아보고, 읽고, 사고 싶으면 사기도 한다. 서점과는 달리 상업적 목적은 현저히 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매거진하우스’는 ‘북하우스’ 옆에 있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3층이다. 1층은 잡지 ‘총집합’인 듯 잡지들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색상과 디자인을 뽐내고 있었다. 2층은 책이 있는 카페였다. 여기서는 커피를 한잔 시켜놓고 요모조모 실내를 둘러보았다. 가족들끼리 차를 마시며, 책장을 넘기며, 서로 담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 아름다운 ‘문화가족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3층에는 건축과 미술에 관한 책을 주로 선보이고 있었다. 관람자들은 여유 있게 책을 구경하며 만져보고 구입하기도 했다.

북카페 반디’는 규모가 작았다. 럭비공 같기도 한 타원형 건물이다. 건물은 2층이지만 1층만이 북카페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방 겸 카운터의 아주머니 두 분이 놀라 쳐다보았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기에 필자는 의아해서 여기가 ‘북카페 아닌가요?’라며 되물어볼 수밖에... 장소가 협소해 보였다. 서비스 경영도 필요해 보였다. 책이 있는 찻집이다.

‘동화나라’는 어린이 서점이었다. 역시 1층만 운영하고 있어 공간은 크지 않았다. 어린이 책을 구비해 놓고 판매하는 곳인데 어른을 위한 어린이 책도 있었다. 나는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1,2권을 구입했다. 그리고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이라는 어린이도서 신간안내 목록도 얻을 수 있었다. 비매품이라 출판사에 부탁했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한 터라 그 목록을 얻으니






■ 모티프 원 내부
 ■ 모티프 원의 하늘이 보이는 천장

좋았다. 아마 그 출판사 담당자는 나의 요청을 까맣게 잊었나 보다.

‘모티프 원’은 책이 있는 사랑방이었다. 책을 판매하지 않고 책을 좋아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놀러와’ 담소하고, 때로는 숙박도 하면서 책을 읽고, 작품을 쓰고, 연주하고, 강의하고, 녹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담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침대, 책상, 책들이 방마다 비치되어 있고 스튜디오조명도 있어 편리해 보였다. 이안수 관장과의 담소가 이루어졌다. 그는 내가 문헌정보학 전공자라고 하자 반가워하며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도 뒤질세라 우리 문헌정보학의 지향하는 목적과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 그리고 나의 도서관에 대한 이상, 사서들의 학문적 포괄성 등을 설명했다. 어느덧 책과 학문, 도서관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았다.

도서관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분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가깝고 친근한 동네 도서관들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필자는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도서관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들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 나는 ‘모티프 원’을 둘러보고 이런 형태가 내가 생각하는 ‘라이브리리호텔’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모티프원’은 책을 통해 인간적 소통을 도와주는 부담 없는 공간이었다.

‘네버랜드빌딩 어린이리브로’는 빌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모가 제법 컸다. 출입문이 까만 벽창호처럼 생겨 벽과 잘 구분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명 불빛이 내 머리를 한층 빛내주는 것 같았다. 어린이 책이 많았다. 어린이 서점으로 최근에 문을 열었다 한다. 인테

어린이리브로의 카운터 
 어린이리브로의 전시 
 어린이리브로 서점 진열대 



리어 소품도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큼 신기하게 꾸며놓았다. 안내카운터가 책의 모형이다. 사자 모양의 인형(사자 모양이니 '사자형' 또는 '사형'으로 해야 할 것 같으나 그런 말이 없어 '인형'으로 쓴다) 둘레에도 좋은 실물 책으로 장식하였다. 장식을 너무 하다 보니 정작 책에는 관심이 덜 가 보였다. 다른 구경 하느라고 책은 주마간산(?)인 듯. 그러나 책이 많아서 앞으로 어린이도서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책이 있는 집'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전시공간이 아니고 개인 가정집이라 하여 방문을 미루었다.

학문, 예술의 교향곡 연주되길

나는 오늘 책과 도서관을 테마로 헤이리를 여행한 셈이다. 이 짧은 여행에서 나는 다시 한 번 책과 도서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책이 있기

에 학문과 예술이 있다. 도서관이 있기에 학문과 예술이 번창하였다. 헤이리에는 도서관은 없었지만 책이 있었다. 그리고 서점이든 카페든 책을 전시 유통시키는 문화공간이 있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앞으로 헤이리 마을에 학문과 예술의 아름다운 협주곡이 날마다 연주되리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여기에 정말 좋은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그리고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우리 학문과 예술의 협주곡은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 세계로 울려 퍼지지 않을까? 헤이리는 아직 표면적으로는 예술마을이다. 그러나 앞으로 '학술마을'로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문헌정보학 전공자로서 간절히 기원한다. 